

정부는 노동시간 개악 안 폐기하라.

국민 의견 발표 및 제안서 전달 민주노총 기자회견

- 일시 : 2023년 4월 18일 오전 11시
- 장소 : 세종문화회관 계단
- 주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1) 취지

- 지난 3월 6일부터 어제 4월 17일까지 40일간 노동시간 개악을 위한 입법예고 기간이 경과 됨.
- 지난 40일간 고용노동부는 개악을 위한 다양한 의견 청취를 통해 ‘입법의 취지를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겠다’ 라고 말했지만 제대로 진행된 바 없음이 확인됨.
-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노동시간 개악에 반대의 입장을 명확히 했으며, 시민사회진영도 노동계와 뜻을 함께하며 반대의견을 담은 입장서를 발표하고 제출함.
- 입법 예고기간 동안 민주노총은 노동시간 개악에 반대하는 내용을 담아 고용노동부 장관, 차관, 정책추진단장에게 ‘항의 문자 행동’ 을 진행하고, 인터넷을 통해 노동시간 개악에 반대하는 국민 의견서를 모으는 사업을 진행함.
- 항의문자행동에는 이만 천여 명, 국민 의견서 제출에는 오천 오백여 명이 참여함.
- 결국 고용노동부는 어제 장관의 입을 통해 “다음 달부터 두 달간 육천 명의 국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등 추가적인 의견수렴 기간을 거치고 법안을 마련하겠다” 라고 밝힘.
- 이는 절대다수의 노동자, 시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졸속, 무능 행정의 대표적인 본보기이며, 윤석열 정부가 주장하는 노동개혁의 허상을 보여주는 증거임.
-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국민 의견서를 서울고용노동청을 통해 제출함.
- 귀사의 적극적인 보도와 후속취재를 요청함.

2) 기자회견 순서

- 진행 : 민주노총 한상진 대변인
- 모두발언 :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 규탄발언 1 : 계절수요에 따른 노동시간 유연화 비판 (임금과 고용)  
금속노조 서울지부 LG전자지회 설정석 지회장
- 규탄발언 2 : 청년 팔이로 여론 호도 비판  
보건의료노조 한국원자력의학원지부 한화수 사무장
- 규탄발언 3 : 집중노동으로 노동자 건강권 침해

노동건강연대 전수경 공동대표

- 연대발언 : 한국여성노동자회 배진경 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 민주노총 서울본부 이현미 수석본부장, 서비스연맹 김광창 사무처장
- 퍼포먼스
- 의견서 제출

※ 붙임자료 1. 기자회견문

※ 붙임자료 2. 양경수 위원장 발언문

※ 붙임자료 3. 보건의료노조 한국원자력의학원지부 한화수 사무장 발언문

## ※ 붙임자료 1. 기자회견문

지난 3월 6일 정부가 노동시간 제도 개편안을 발표하였다. 노동자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을 보장한다는 기만적인 포장지를 씌웠지만, 노동자들과 국민들 속에서 낱알이 실체가 드러났다. 실체는 주 69시간까지 장시간, 집중노동으로 과로를 유발하는 과로사 조장법, 연장수당 제대로 못받는 임금삭감법, 일자리를 줄이는 고용감소법, 휴가는 없이 노동시간만 늘리는 노동시간 연장법, 노동시간에 대한 사용자 선택권 확대법이었다.

실체가 드러나면서, 이미 여론조사에서도 드러나듯 국민의 60% 이상이 정부의 노동시간 개편안에 반대하고 있다. 정부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전문가들만 골라서 소위 미래노동시장연구회를 구성하여 안을 만들 때부터 예견된 것이었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자들과 충분한 의견수렴과 논의를 생략한채 밀어붙이기식의 노동시간 개악 안에 노동자들과 국민들이 동의할 수 없는 것이다.

한국은 여전히 연간 노동시간이 1,915시간으로 OECD평균보다 200시간 이상 길고, 일부 남미국가를 제외하면 세계 최장 노동시간을 기록하고 있다. 노동자들 절반이 초과근로를 하고 있고, 60%는 초과근로수당 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노동자중 10명 중 8명은 연차휴가를 온전히 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 3명 중 2명은 휴가를 월 1회도 못 쓰고 있다.

노동자들은 여전히 장시간 노동에 내몰려 있는 상황인데 노동시간을 더욱 늘리자는 정부가 도대체 제정신인가? 오로지 사용자들의 요구 외에 노동자와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처사이다.

청년들을 위해 자율적 선택권을 보장하는 제도라고 떠벌려 놓았지만, 정작 청년들조차 반대하고 있다. 노동조합이 없는 작은사업장,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더욱 장시간 과로노동으로 내몰고, 청년, 여성 일자리를 축소하고 돌봄과 저출생-고령화 대책과는 정반대로 가는 개악안에 국민들 모두가 분노하고 있다.

오늘 국민들의 분노를 모아 정부의 노동시간 개악안을 폐기하라는 국민들의 의견서를 제출한다. 노동시간 제도 개악은 단지 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자와 그 가족, 모든 국민들의 행복한 삶 자체를 파괴하는 것이다.

국민들은 요구한다. 정부는 당장 노동시간 개악안을 즉각 폐기하라!

정부는 과로사 조장하는 개악안을 즉각 폐기하고, 장시간 노동을 근절하고 사각지대 없이 노동자의 건강권을 온전히 보장하기 위한 대책으로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게도 노동시간 규율과 휴가권을 법적으로 보장하라!

공짜야근 유발하는 포괄임금제를 폐지하고 근로시간 기록.관리를 의무화하라!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사회적 논의에 나서라!

정부는 설문조사나 심층인터뷰를 하겠다면서 일부 수정하여 개악안을 계속 밀어붙일 모양이다. 그러나, 이미 국민적 정당성과 신뢰가 무너진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강행하다면 윤석열 정권에 대한 국민적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다시 한번 요구한다. 정부는 지금당장 노동시간 개악안을 폐기하라!

2023년 4월 1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 붙임자료 2. 양경수 위원장 발언문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노동시간 개악은 실패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임이 증명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120시간 노동 운운하며 장시간 노동을 기획했고,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를 통해 구체화했으며, 입법예고로 현실화 했습니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더 이상 시키는대로 일하지 않겠다고 저항했습니다. 극심한 반대에 부딪힌 정부는 이제와서 의견수렴을 하겠다고 합니다. 정부의 노동시간 개악은 실패했기에 폐기해야 마땅합니다. 노동자들을 장시간 노동으로 내몰려는 대통령이 책임지고 사과해야 합니다.

우리 노동자들은 죽도록 일하다, 정말 죽음으로 내몰리는 삶을 다시 살지 않을 것입니다. 워라밸은 둘째치고 과로사는 없어야 하지 않습니까. 살기위해 일하는데, 일하다 죽는 기막힌 현실이 반복되는 상황에도 더 많이 일하라는 윤석열 정부는 노동자의 적입니다. 여전히 세계 최고수준의 노동시간을 기록하는 한국사회에서 시급히 논의해야 할 문제는 노동시간을 어떻게 단축할 것인가입니다.

노동부 장관은 어제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최대규모인 6천명 국민 여론조사를 하겠다고 합니다. 순서가 틀렸습니다.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먼저 듣고, 노동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만들고,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순서입니다. 120만명에 달하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왜 외면하는 것입니까. 민주노총이 모은 노동자 국민의 의견을 무시하는 이유는 입맛에 맞지 않아서 입니까? 이제와서 국민여론조사 운운하는 것이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처럼 여론조사를 또다시 노동시간 개악의 지렛대로 삼으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또한 노동시간을 빌미로 근로자대표제를 개편하겠다고 합니다. 겉으로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함이라고 하지만, 속내는 노동조합을 무력화하기 위한 수단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단체행동권을 갖지 못한 노사협의회를 통해 노동자들의 투쟁을 가로막고, 자본의 먹잇감으로

넘겨주겠다는 꼼수에 단호히 맞서 싸울 것입니다.

노동자 시민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민주노총으로 모아주신 소중한 의견을 정부에 당당히 전달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시간 노동으로 노동자의 삶을 파괴하려는 윤석열 정권에 맞서 싸우겠습니다. 더 많은 비정규직을 만들겠다는 윤석열 정권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더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 붙임자료 3. 보건의료노조 한국원자력의학원지부 한화수 사무장 발언문

안녕들하십니까. 저는 한국원자력의학원에 5년째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보건의료노조 한국원자력의학원지부 사무장 한화수입니다.

정부는 청년의 미래를 위해 노동 개혁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청년의 한사람으로서 그 말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변화하는 사회 안에서 노동조합도 발맞추어 나아가면서 뒤떨어진 제도를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노동 개혁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입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청년들은 정부의 노동 개혁 과제에 대부분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결과입니다. 누구도 매주 69시간씩 일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일하는 병원 사업장은 이미 노동시간 특례업종으로 지금도 노사합의만 있다면 한 주에 120시간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그 누구도 그렇게 일하길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신규간호사 때 병원에서 일하면서 밀려드는 수술환자 간호를 시행하라, 한편에서는 임종을 앞둔 환자 간호를 시행하라 제시간에 퇴근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시간이 부지기수였습니다.

정말 의료인이라는 자부심과 환자에 대한 사명감으로 일했었지만 쉽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만약 계속해서 그렇게 일해왔다면, 진작에 그만두었을 것 같습니다. 주말을 잃고, 건강을 잃고, 친구를 잃고, 나를 잃으며 일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미 다 잃은 후에 장기휴가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난 4월 6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청년들이 모였습니다. 건설, 금융, 플랫폼노동자, 병원, 공공기관, 교사, 공무원 다양한 청년들이 모였습니다. 이정식 장관과 공개토론회를 하고자 했습니다. 정부가 청년을 말하면서 노동개악을 추진하는데, 일부의 선별된 청년들만을 만나왔기 때문입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혁하겠다는 정부입니다. 정말로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했다면, 참여하지 못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정부에게 필요한 것은 청년이 아니라, 지지자인 것 같다면 오해일까요?

정부가 근로시간 개편을 통해 노동자의 장기휴가를 보장하겠다고 하지만 이 부분도 현실을 봤을 때 과연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병원 사업장은 24시간 운영되고, 환자를 위해서 자리를 비울 수 없는 곳입니다. 이러한 사업장에 충분한 인력확충 없이 안식월, 한 달 살기 등 다양한 장기휴가가 가능할까요? 지금도 현장에서는 본인이 부여받은 연차를 다소 진하지 못할 뿐 아니라 고질적인 인력난에 시달리며 시간 외 근무를 하면서 현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2021년 보건의료노조와 정부는 보건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직종별 적정인력기준을 마련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 후 2년이 다 되어가고 있지만 무엇인가 변화되고 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습니다. 인력확충에 대한 진척이 없는 상황에서 이런 장기휴가 제도는 이름뿐인 제도로 현장에서 적용 할 수 없는 신기루 일뿐입니다.

지금 정부의 모습은 노동시장의 문제들을 개선하기보다는, 노동조합 때리기에 더욱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노동조합에 대한 각종 조사와 조치에 행정력을 쏟고 있습니다. 한정된 행정력이 노동조합 관련 사안만 다루다, 소외되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노동자들의 처지가 더 외면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정부가 청년세대, MZ를 말하면서 추진하는 노동개혁은 청년뿐 아니라 모든 노동자에게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청년들을 이야기하면서 개악안을 제시하지 말고, 정부가 정말 청년들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일과 삶이 양립할 수 있는 더 좋은 방안과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좋은 일자리’가 무엇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노동개악안을 폐기하고, 더 나은 사회, 일하는 사람들이 존중받는 사회를 고민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